

<사명선언문> "백운의 영성과 문화와 복지를 책임지는 교회"
390-883/충북제천시백운면 천등박달로5안길 8
HP : www.vit2be.com
담임목사 신상균



백운향

2017년 교회표어 "제자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2017년
부름받은 제자!
훈련받은 제자!
가르치는 제자!

백운교회 소식지

창간 2014년 4월 6일 대표전화 043/652/9191

제 36호 2017년 3월 5일 발행 [월간]



담임목사 신상균

마음의 겨울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극장 구경(영화관람)을 가게 되었다. 아 이들과 함께 떠들면서 걸어가 도착한 곳은 구리극장(경기도 구리시 소재)이었다. 자리에 앉자 얼마 안 있어 극장의 불은 모두 꺼졌고 영화가 상영되었다. 그 영화는 '유관순' 영화였다. 일본에 나라를 빼앗기고 신음한지 9년이 지난 1919년, 조국 독립을 열망하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어린 소녀 유관순의 영화는 처음으로 영화를 보던 소년의 눈에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게 하였다.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에 신기해하던 소년은 처음에 왜 눈물을 흘리는지 몰랐다. 그런데 나중에 그 눈물이 바로 나라를 빼앗긴 민족의 현실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요, 힘없는 한 소녀의 죽음을 애도하는 눈물임을 알게 되었다.

삼일절이 되면 학교에서는 삼일절 노래를 불렀다. "기미년 삼월일일 정오 터지자 밀물같은 대한독립만세 태극기 곳곳마다 삼천만이 하나로 이 날은 우리의 의요 생명이요 교훈이다..." 삼일절 노래를 부르면서 아마 모든 사람들은 나라를 다시는 다른 나라에 빼앗기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나도 그렇다. 우리나라가 외세의 침략을 당하거나, 전쟁으로 나라를 빼앗기는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우리 나라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을까? 힘이 있으면 나라를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힘이 없다면 다시 옛날처럼 중국을 섬기거나 일본을 섬겨야 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힘을 가질 수 있을까?

연개소문이 죽기 전 세 아들을 불렀다. 그리고 그들에게 신신당부했다. "내가 죽으면 너희들이 권력을 잡을 것이다. 허나 벼슬을 두고 서로 다투어서는 절대 안된다. 너희 형제들이 물과 고기처럼 서로 화목하다면 고구려는 강성해질 것이다. 만약 화목하지 못하면 너희들은 당나라에 치욕을 당할 것이다. 내 말 명심하라" 그러나 연개소문의 걱정은 불행하게도 현실이 되고 말았다. 결국 874년 세 아들의 내란으로 인해 고구려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만다.

하나가 되지 않으면 결국 힘은 사라지고 만다. 하나가 되었을 때 힘이 모이고, 그 힘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하나님께 기도하신다. 그런데 그 기도 중에 이런 내용이 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

"우리는 하나"

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시라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11절)"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가 되는 것이다. 부부가 하나되고, 이웃이 하나되고, 민족이 하나될 때 우리는 어떤 공격도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삼일절을 맞이하여 모든 분열이 사라지고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백운면 부녀회장단 "참소망의 집"목욕봉사 활동 지역의 노인돌봄행사에 앞장서기를...



구학산로 베델교회에 위치한 참소망의 집에 도착한 시간은 아침 9시였다. 제법 쌀쌀한 날씨에 마음까지 움추려 들게 했다. 이날 행사에는 백운면 부녀회회원 8명이 참석했으며 매년 실시하는 어르신 목욕봉사를 가졌다.

문을 열고 들어선 우리에게 원장님이신 곽상례장로(82)께서 맞이해 주셨다. 원장님은 서울의 소망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18년 전에 이곳으로 오셔서 참소망의 집을 설립하여 현재 22명의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다.

우리는 목욕과 방 청소를 해드리며 어르신들의 손 톱과 발 톱을 깎는 행사를 했는데 어딘지 부족한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은 이분들이 필요한 것은 한 분 한 분 손잡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에게 원장님께선 앞으로의 계획은 하나님께 붙들려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천국 가는 것이 소망이라고 하셨다. 이곳을 떠나며 봉사의 소중함과 즐거움을 느꼈다.

<홍순정대월리부녀회장>



2017년 부장단회의를 마치고

우리부서의 올 계획은 이렇습니다.

교회 어르신돌봄행사에 힘쓰겠습니다.

봉사부 부장 신원승권사

매주 생신을 맞으시는 분에게 생신축하금을 드리고 어버이날, 추석, 구정을 전후해 어르신들 목욕봉사와 식사를 대접하고 명절 및 행사에 지역 현수막설치, 특히 매월 마지막 주일 오후 4시 차량이 없어 목욕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목욕봉사 차량운행을 실시합니다.

예배부 부장 이상호장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백운교회를 섬기는 예배부가 되기를 소망하며 113년의 역사와 전통의 공동체에 조금이라도 누가 되지 않으며 목사님을 비롯해 전 교우들을 섬기며 선택 받은 천국인의 자부심으로 어제의 믿음보다 오늘의 예배에 열심을 다하는 승리하는 부서로 거듭나겠습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교회로 꾸미겠습니다.

관리부 부장 이신희권사

귀한 청지기로서 마음의 욕심을 버리고 교회를 돌보는 일에 충성하겠으며 건물관리, 비품 보존에 힘쓰며 교회 정원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새소리가 이어지는 휴식처로 만들며 나무에 새 집 달고 새끼를 품는 아름답고 낭만과 행복이 깃드는 동산을 만들겠습니다.

재무부 부장 안종숙권사

재정관리에 정확과 정직을 다하겠습니다.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며 정확하고 정직하게 교회의 재정을 관리하며 매월 셋째 주일엔 올해 예산 달성을 위해 합심 기도하고, 교회의 부흥과 목사님과 교우 가정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며 은혜 가운데 각 가정마다 물질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선교부 부장 신정옥권사

장날전도에 힘쓰겠습니다.

선교부서에서는 매달 6일 장날전도를 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커피와 차를 대접하며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식사티켓을 드려서 점심식사를 제공합니다. 또한 실버스쿨에도 참여해 선교에 힘씁니다.

문화부 부장 홍순정권사

영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교회의 모두가 공감하며 함께 할 수 있는 여행과 율동 및 찬양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으로 5월의 가족찬양과 맥추주일 찬양발표회, 추수감사주일의 발표회, 전교인 야외예배를 통하여 온 교우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교회 모든 일에 믿거름이 되겠습니다.

총선교회 회장 원영삼권사

교회 주방관리, 애찬준비를 시작으로 매월 첫주 회장단모임, 절기행사로 부활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김장담기, 어르신효도관광등을 실시하며 올해는 5월에 감리사 이취임식과 10월 지방계삭회를 주관합니다. 항상 협조해 주시고 교우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